

GIST, 완도군과 해조류 바이오 특화산업 기술 협력 및 지역인재 양성 맞손

- 25일(수) 완도군청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 임기철 총장과 신우철 군수 참석... 지역산업 육성, 연계사업 발굴, 교육협력, 인재양성 등 4개 분야 협력하기로
- 해양바이오산업 발전 위한 스마트 팩토리 추진 및 관련 산업 육성..."완도군의 해양자원과 GIST의 첨단바이오 및 AI 연구역량·인프라 융합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 기대"



▲ GIST와 완도군이 해조류 바이오 특화산업 분야 기술협력 및 지역인재 양성 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왼쪽부터) GIST 임기철 총장과 완도군 신우철 군수가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전라남도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해조류 바이오 특화산업 분야 기술협력 및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9월 25일(수) GIST 임기철 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김재관 대외협력처장, 진미선 생명과학부 교수와 완도군 신우철 군수, 김현철 부군수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군청에서 열렸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지역 산업 육성: 해조류 바이오 분야 특화산업 유치 등을 위한 교육 및 기술협력 ▲연계사업 발굴: 정부 4차산업 연계농·수·축산업 연계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공동협력 ▲교육 협력: 완도군 교육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협력 ▲인재 양성: GIST 기술경영아카데미(GTMBA) 교육과정 개설 협력 및 장학생 선발 등이 포함됐다.

임기철 총장은 “국내 제1의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이 보유한 해양자원에 GIST의 첨단바이오 및 인공지능 분야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융합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자”며 “특히 GIST의 우수한 생명과학 분야 연구진이 핫라인을 구축, 긴밀히 협력한다면 완도군의 산업 발전은 물론이고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완도군은 우수한 연구력과 기술력을 갖춘 GIST와의 협력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추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은 물론 양 기관의 동반 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GIST와 완도군이 해조류 바이오 특화산업 분야 기술협력 및 지역인재 양성 등을 위해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한편 GIST는 올해 들어 전남 순천시를 시작으로 장성군, 고흥군, 영암군, 광양시, 장흥군, 해남군, 담양군, 화순군, 완도군 등 10개 시·군과 MOU를 맺고 전남권 지역을 아우르는 대규모 교육·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현재까지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집중 육성 대상 산업과 연구 분야가 맞는 전임교원 14명을 ‘과학기술혁신대사’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 가고 있다.